

# — 強 心 劑 —

〈時論〉

고무 試驗研究所

次長 李 德 杓

피약벌이 아스팔트를 녹이는 寒伏中の 距離에 서서 사람의 물결에 휩쓸려 걷다 보면 自然 지나치는 사람보다 그들의 각양각색의 신에 눈길이 가게되는 것은 아무래도 고무쟁이 된 習性때문인가 보다.

우리 나라 고무工業의 3분의2 이상이 신발 製造業이고 보니 自然 이 分野에 從事하는 우리나라 모든 고무技術자들이 都賣금으로 「갓바치」란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苦生길이 예로부터 宿命지어진 것일까? 갓바치의 宿命을 타고난(?) 가엾은 이 나라 고무技術자들은 自信이 쟁이로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새로운 世界를 열어 헤칠려는지, 아주 重要的 自信의 事命이나 責任에 대해서는 아무 自覺도 없이 나날을 他姓의 수레바퀴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다면, 이에 意義를 提起할 勇敢한 고무技術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 노릇이다.

아폴로 11호의 「닐·암스트롱」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13겹에 다시 유리섬유와 천 12겹으로 된 갑피에 바다가 유리섬유의 펠트, 실리콘, 고무, 금속 및 천으로 겹을 이룬 큰신을 신고 우리시간으로 1969년 7월 21일 하오 3시 21분에, 달 表面을 밟으므로 달에 最初로 발을 딛는 最初의 人間이 된단다. 태고(45억년)의 神秘를 푸는 첫 열쇠가 되는 이 壯途에도 이 地球의 人間이 신은 신이 미지의 달 표면과 첫 대화를 하게됨을 불배 後進國의 갓바치에게 어찌 한가닥 感懷가 없겠는가.

남들은 이 같이 科學의 尖端을 치닫는 다는데 實物찾기와 같은 주먹구구技術이 활개를 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百科辭典式 萬能形이기를 強要당한 이 나라의 고무쟁이들이 人間 이하의 待接을 感受하면서 5만을 헤아려가게된 고무製品의 몇가지를 만드느라 中世記 鍊金術師마냥 낡아빠진 機械의 종이 되어 이리 이기고 저리 쉼어 이리도 켜보고 저리도 켜보며 웃다 울다하는 모습이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쳐보는 이상으로 서글움이 있다. 우리가 社會生活에서 技術者란 名譽를 쓴 후로 흔하게 듣는 것이 「그 사람은 技術者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言動의 울타리가 아주 좁아」 또는 「아주 壟拙하단 말이야」하는 말들인데, 이것은 그 나름대로 가진 아주 나쁜 技術者的 良心에 억매어 悠悠부단 함을 善意로 평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이야기 거리를 만들

지 않도록 갓바치들은 勇氣를 내라 「良心的인 技術진 집한 研究가 輕視되고 技術者나 研究者의 發言이 거의 쓰이지 않으며 機械設備은 언제까지나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變變한 研究室하나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飢饉이 아닌가? 도대체 내 쓸모가 무언지 모르겠네」

“그렇담 자네의 그 쥐꼬리만한 技術者的 良心을 잘 리버리게”

“우리會社는 經營은 健實하나 너무 操心性 있게 일을 해나가다보니 自然 消極的이어서 競爭會社가 새로 成長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게되니 부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자네도 그 悠悠부단한 技術者的 良心을 벗어 버려”

“우리는 經營陣이 모두 일가부치로만 이루어져서 도대체 말발이 서야 제 구실을 해볼텐데…… 차라리 사장 사위라도 될 研究를 이제 부터라도 始作해야겠네”

“자네도 나 아니면 안된다는 獨善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따위 八字에 없는 데릴사위 될 생각을 치우고 그 종지안은 技術者的 良心에 얽매어 속색이지 말고 일적 決斷을 내리게”

고무쟁이의 年輪이 쌓이었다고 無形文化財로서의 價値가 附與되는 것도 아니고 고무쟁이의 말로는 스크렐 이하의 價値밖에 없다고도 하지만 갓바치된 宿命을 怨望말고 모두 強心劑를 服用하라. 이제 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두 強心劑를 服用하고, 정말로 信條가 뚜렷하고 옳은 技術者的 良心에 따라 至今 自信이 놓인 組織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해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한 實力을 어떻게 몸에 붙여 갈 것인가를 熱心이 생각하여, 물러갈 때와 파고들어 끈질기게 싸워 이겨나감에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다.

바보가 된 마음자리를 갖고 고무를 업신여기지 말고 加工技術을 그리고 技術者로서의 옳은 社會生活 技術을 練磨하여 갓바치로서의 事命을 다해감에 必要한 분은 이제 부터라도 效能이 좋은 強心劑를 많이 服用해 보시다.

(7월 15일)